개혁복음주의회 제 4호

필수적인 기도

Christ-Centered Reformed Theology Fellowship

개혁복음주의회 소개

개혁주의에 철저하게 입각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모임 및 출판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7)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증거하려는 입장입니다. 이에 신구약 성경을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합니다. 청교도 작품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및 그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작품을 선별하여 연구하고 소개하며, 현재 출간되는 여러 해외 작품도 개혁복음주의와 일치할 때 번역하고 소개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 내의 작품도 출판하고 연구하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개혁복음주의회 대표 스데반 황

발행처 및 발행인 개혁복음주의회 출판사 • 대표 이성애

총 편집인 스데반 황

기획 출판 가은숙

재정 운영 담당 조병용

연락처 010-7732-5600(스데반 황)

Christ-Centered Reformed Theology Fellowship

© 개혁복음주의회, 2016

개혁복음주의회 제 4호

필수적인 기도

J.C 라일

•

존 버니언

•

유진 브래드포드

•

찰스 스펄전

•

에롤 홀스

•

엔드류 머레이

•

옥티비우스 윈슬로우

© 개혁복음주의회
Christ-Centered Reformed Theology Fellowship

필수적인 기도

차례 | CONTENTS

1. 가장 중요한 주제 6
J.C 라일 / 우선동

2. 진정한 기도란 무엇인가 11
찰스 스펄전 / 이중원

3.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 29
유진 브래드포드 / 안선형

4.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들 33
찰스 스펄전 / 신형건

5. 간구: 목사의 일 44
유진 브래드포드 / 황모세

6. 기도 모임의 중요성 49
에롤 홀스 / 스데반 황

7. 기도하지 않는 목사들 57
엔드류 머레이 / 김성환

8. 기도를 하지 않는가? 아니면 기도로 충만한가 63
J.C 라일 / 오병재

9. 계속 기도하라 78
찰스 스펄전 / 안선형

1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기도 80
옥티비우스 윈슬로우 / 조현목

역자 소개

우선동 목사

한양대학교(B.A.)/ 고려신학교(M.Div)/ 고려 신학대학원(Th.M)
현, 열린문 교회 담임

이중원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졸업
현, 대한항공 객실승원부 부사무장

안선형

인하대학교(BA)
부평소망교회 안수집사/ 번역 작가(영어, 일본어)

신형건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온누리교회 집사

황모세 목사

탈봇 신학교 (M. Div)/ 고든 콘윌 (Th. M)
현, 남가주 사랑의 교회 부목사

스데반 황 목사

연세대학교(B.Eng.)/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M.Div)/ 비블리컬 신학대학원(Th.M)
현,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담임

김성환 목사

총신대학원 (M. Div)
현, 평강 교회 담임

오병재 목사

필라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M. Div)/ 연세대 신학 석사 (Th. M),
현, 그리스도의 보혈 교회 부목사

조현목

개혁주의를 사랑하고 경건 서적 번역을 즐거워하는 순수한 청년
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정치외교학과 및 스페인어과 졸업

1. 가장 중요한 주제

출처 | *Practical Religion*
저자 | 라일(J. C. Ryle, 1816-1900)
저자 | 공회 목사이며 작가. 영국 체쉬에서 출생.
역자 | 우선동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눅 18:1).

기도는 실천적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기도 다음이다. 성경을 읽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은 매우 중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개인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1) 기도는 한 사람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렇게 권고한다.

나는 지금 유아와 바보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 나는 또한 이교도에 대하여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이라는 구절을 기억한다. 나는 특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그 누구라도 구원받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나는 은혜에 의한 구원을 그 누구보다 강하게 믿는다. 나는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 중 가장 악한 죄인에게도 자유롭고 완전한 용서를 기쁜 마음으로 알려줄 것이다. 나는 죽어가는 그의 침대 옆에 서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는 말씀을 주저 없이 전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구원을 구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 진심으로 "주 예수여, 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없이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을 나는 보지 못하였다. 나는 사람은 기도라는 공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기도 없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오른 편에 선 자들이 많을 것이다.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에서 모인 성도들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계 7:9) 될 것이다. 마침내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면 그들의 입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노래가 터져 나올 것이고, 그것은 진정한 송영이 될 것이다. 그 소리는 많은 물과 큰 천둥소리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하지만 그 노래에는 불협화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노래할 것이다. 그들의 경험은 하나이며 동일할 것이다. 모두가 믿음을 가진 자들일 것이며,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들일 것이다. 모두가 거듭난 자들일 것이다.

모두가 기도를 드렸던 자들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에서 찬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기도 학교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찬양을 드리는 휴일을 즐길 수 없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기도가 없는 것은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은혜 없이, 소망 없이, 천국 없이 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지옥을 향하는 길에 있다는 뜻이다.

2) 기도하는 습관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표시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해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다. 그들이 생명을 가지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기도한다.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생명의 맨 처음 징후가 숨을 쉬는 것인 것처럼,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성도의 공통적인 표시 중 하나이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눅 18:7).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성령께서는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그들로 양자됨을 느끼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롬 8:15)라고 부르짖게 하신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목소리와 입을 주시며 “더 이상 벙어리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는 벙어리가 없다. 아이가 우는 것처럼, 그들의 새로운 본성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필요를 느낀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가치함과 나약함을 느낀다. 그들은 달리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들은 기도해야만 한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믿음의 사람 중에 기도의 사람이 아닌 자를 찾지 못했다. 나는 경건한 자들의 특징은 “아버지를 부르는 것”, 즉 “우리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임을 발견했다. 반면에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것”은 악인의 특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벧전 1:17, 고전 1:2, 시 14:4).

나는 성경 시대 이후로 이 세상에 살았던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읽었다. 그들 중 일부는 부자였고 일부는 가난했다. 또 그들 중 일부는 배운 자들이었고 일부는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성공회 신자였고 일부는 장로교인이었으며, 일부는 침례교인이었고, 일부는 독립교인이었다. 일부는 칼빈주의자들이었고 일부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문을 사용하기를 좋아했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사람이 마음과 진실함이 없이 기도할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한 사람이 기도한다는 단순한 사실이 그의 영혼에 대한 모든 것을 입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신앙생활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도에 있어서도 기만과 위선이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진실로 느낄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 그는 거룩함을 갈구하지 못한다. 그는 천국을

갈망하지 못한다.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그는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 그는 선택, 은혜, 믿음, 소망, 그리고 지식을 자랑할 수 있으며 무지한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든 이야기는 다 헛되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나는 성령의 참된 역사에 대한 모든 증거 중에서 진실한 개인 기도의 습관이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은 거짓 동기로 설교할 수 있다. 책을 쓰고, 훌륭한 연설을 하고, 부지런히 선행을 할지라도 그는 가룟 유다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진실한 신자가 아니라면 그는 결코 그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을 쏟아 놓지 못할 것이다. 주님 자신이 참된 회심의 가장 좋은 증거로서 기도에 인을 치셨다. 주께서 아나니아를 다메섹에 있는 사울에게 보냈을 때, 주께서는 그에게 사울의 마음의 변화에 대한 증거를 이것 외에 아무 다른 증거를 주지 않으셨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행 9:11).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영원 전부터 구원받기로 선택되었음을 안다. 나는 성령께서 정해진 때에 그들을 부르시며,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그들을 천천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나는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의롭다 함을 받은 자라고 부를 수 없다. 나는 누구라도 기도할 때까지는 믿는 자라고 감히 말하지 못한다. 믿음의 첫 번째 행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믿음과 영혼의 관계는 생명과 육체의 관계와 같다. 기도와 믿음의 관계는 호흡과 생명의 관계와 같다. 사람이 어떻게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역시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2. 진정한 기도란 무엇인가

출처 | *Prayer*
저자 | 존 버니언(1628-1688)
영국 침례교 목사이며 「천로역정」 및 수많은 책을 펴낸 유명한 저자이다. 영국 엘스토우에서 출생.
역자 | 이중원

기도란 진실하게, 감정을 느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 안에서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이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일곱 가지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기도는 (1) 진실해야 하며, (2)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3) 그리스도를 통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쏟는 것이어야 하며, (4)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미

암아야 하고, (6) 교회의 유익을 위하며, (7)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동반되어야 한다.

1. 첫째로, 기도는 진실하게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이다.

진실함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과 함께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로서 신자들의 모든 삶을 통해 나타나며 또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만일 신자에게 진실함이 없다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다. 다윗은 기도에 대해 말할 때 특히 진실함에 대해 말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시 66:17-18). 기도 행위는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 기도할 때에 그 안에 진실함이 없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시 16:1-4).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렘 29:12-13).

이런 진실한 마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 호세아 7장 14절은 이를 잘 보여준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에서 '성심으로'는 '진실하게'라는 뜻이다.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라는 말씀은 그들이 위선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외식한다는 것이다. 진실함은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시고 칭찬하셨던 그 덕목이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요 1:47). 아마도 이 착한 사람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마

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영으로 기도했던 것이다. 진실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잠 15:8).

왜 진실함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필수조건인가? 왜냐하면, 진실함은 영혼이 아무런 꾸밈없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진실함은 기도하는 자가 주님께 문제를 애매하게 말하게 하지 않고 명백하게 고백하도록 한다. 그가 사실을 숨기는 대신, 죄를 솔직히 인정하도록 한다. 격식 차린 말 대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울부짖도록 한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렘 31:18). 진실함은 온 세상을 마주대할 때나 홀로 구석에 서있을 때나 똑같다. 진실함에는 사람들 앞의 모습과 자신만 아는 모습의 두 얼굴이란 없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아무 뜻 없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함은 하나님처럼 마음을 진실하게 들여다본다. '진정한 기도'는 바로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2. 기도는 진실하게, 감정을 느끼며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아무 얘기나 중얼거리고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지만, 기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기도는 마음의 감정을 수반한다. 기도는 그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느낄 수 있다. 때때로 죄를 자각할 수도 있고, 받은 은혜를 느끼기도 하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는 것도 느낄 수 있다.

(1) 죄의 위험 때문에 느끼는 은혜의 결핍
(죄를 자각하고 은혜를 구함)

나는 '영혼'이 감정을 느낀다고 본다. 그리고 영혼은 그 느낌으로부터 한숨을 쉬고, 신음하며, 가슴을 찢는다. 어떤 무거운 물건이 살갗을 짓누를 때 피가 나는 것처럼, 마음이 슬픔과 비탄에 잠길 때 바른 기도는 그 마음으로부터 쏟아져 나온다(삼상 1:10; 시 69:3). 다윗은 소리치고, 울부짖고, 탄식하며, 심장이 뛰고, 눈이 보이지 않고, 기력이 쇠해졌다고 고백한다(시 38:8-10). 히스기야는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다(사 38:14). 에브라임은 스스로 탄식했고(렘 31:18),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였다(마 26:75).

그리스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히 5:7). 그리고 이 모든 기도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인지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지옥과 파멸의 고통을 인식한 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시 116:3-4). 또 다른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시 77:2). 또한,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시 38:6)라고 고백한다. 이 모든 사례들을 통해 당신은 기도는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수반하며, 첫째로 죄에 대한 자각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 때때로 주께서 베푸신 자비를 통해 느끼는 달콤한 감정들이 있다.

즉, 격려와 위로와 힘주심과 생동력과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를 느낀다. 따라서 다윗은 그처럼 초라하고 악한 비참한 자신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송축과 경배를 드렸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시 103:1-5). 이처럼 성도의 기도는 때때로 찬양과 감사로 바뀌지만 그것 역시 여전히 기도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 신비한 일이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기도가 된다. 그런 기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 잘 전달된다.

(3) 기도 중, 때때로 영혼은 은혜를 받아야 함을 느낀다.

이런 느낌은 다시금 영혼을 불타오르게 만든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삼하 7:27). 이런 감정들은 야곱, 다윗, 다니엘 및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자극하였다. 그들은 그저 가끔 생각난 듯이 간헐적으로 기도하거나 지각없이 공허한 말을 내뱉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강력하고, 열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그들의 상황을 아뢰었다. 그들은 그들의 필요와 비참함,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호의를 인식하며 이러한 기

도를 드렸다(참고: 창 32:10-11, 단 9:3-4).

3. 기도는 진실하게, 감정을 느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이다.

오! 진정한 기도에는 뜨거움과 힘, 생명과 생기, 그리고 사랑이 담겨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시 42:1).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시 119:40).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시 119:174).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시 84:2).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시 119:20). 오! 시편의 기도들 속에서 발견되는 사랑을 보라! 다니엘의 기도에도 이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단 9:19). 다니엘의 기도는 구구절절 강력한 열정을 담고 있다. 야고보는 이런 기도를 간절한 기도, 혹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눅 22:44). 주님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부터 더 큰 사랑을 느끼셨다. 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기도와는 동떨어진 기도를 드리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의무마저 의식하지 못한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실하게, 감정을 느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 붓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까봐 두렵다. 그들은 잠깐 중얼거리거나 몸을 흔든다든지, 머릿속으로 잠시 웅얼거리는 데에 만족한다.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전 인격이 그 기도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리고 그는 사랑의 기도 안에서

선한 갈망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위안을 얻기까지 자신의 영혼을 쏟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바로 성도들이다(시 69:3; 38:9-10; 창 32:24,26).

무지와, 세속, 질투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도의 외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너무도 뜨겁다. 하지만 기도의 능력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 그들은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아들(그리스도)을 통해 맺는 아버지(하나님)와의 교제를 모르며, 그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은혜의 능력을 느끼지 못한다. 그들의 모든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저주 속에서, 술 취한 채로, 음탕하며 가증스럽게 살아간다. 그들은 악의로 가득하고, 질투하고 속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한다. 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는지! 그들의 모든 위선적인 모임과 기도들은 결코 그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거나 보호해줄 수 없을 것이다.

기도는 마음과 영혼을 쏟아 붓는 것이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한숨지으며 탄식하는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말한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시 38:9). 또한 이렇게 고백한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시 42:2,4).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는 구절을 주목하라. 이는, 그의 생명과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시 62:8). 이는 속박과 구속에 매인 비참한 백성들을 건져주신다는 약속은 기도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신 4:29).

다시 말하지만, 기도는 그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 붓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기도하는 영의 뛰어난 특징을 보여준다. 그것은 기도하는 영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시 42:2). 이 고백은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은 참으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의 허무함을 깨닫고 있음을 말한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영혼을 위한 참 안식과 만족이 있음을 주장한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딤전 5:5).

그러므로 다윗은 이처럼 말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시 71:1-5).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나 바른 기도만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여기며 모든 면에서 신뢰한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확신이나 가치를 찾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이, 기도는 진실하게, 감정을 느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또한, 기도는 진실하게, 감정을 느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반드시 보태져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모양이 아무리 탁월하고 유창한 기도로 보일지라도, 참된 기도인지 의심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해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귓가에 단 한마디도 전달될 수 없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요 14:13-14).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방법이다. 그도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단 9:17). 또한 다윗 역시 그러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시 25:11).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와 같은 뜻이다. 하지만 지금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는 기도가 실제적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효과적인 기도임에도,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사람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인식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긍휼을 갈망할 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먼저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있

어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모세는 이같이 기도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출 33:13).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리스도를 알려주실 수 있다(마 11:27).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마치 사람이 대피소 안에 숨는 것처럼(마 16:16)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님의 그늘에 피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종종 그의 갑옷, 방패, 요새, 피난처, 피할 바위, 반석 등으로 묘사함을 볼 수 있다(시 18:2; 27:1; 28:1). 다윗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호의를 발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창 15:1).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제 믿음을 가진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지체가 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요 3:5,7; 1:12).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신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하나님의 선택과 회심, 거듭남, 성령의 임재로 인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보시며,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의 일부분으로 여기시는 것이다(엡 5:30). 그러므로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분의 의와 승리, 그리고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하나님)가 사랑하시는 자"로 받아들여진다(엡 1:6). 이처럼 이 가련한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 예수님의 지체이며 그분의 몸이라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며, 그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게 된다.

4. 기도는 진실하게, 감정을 느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말미암아, 그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매우 상호의존적이라서 동시에 발생되지 않고 기도가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도가 가장 뛰어난 말재주로 드려지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없이는 하나님께 거절당할 뿐이다. 진실하게, 감정을 느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단순히 중얼거림에 불과하다.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귓가에 절대로 들릴 수 없는 부족한 기도이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도가 아니라면, 이는 마치 아론의 아들들이 드린 다른 불과 같은 기도가 된다(레 10:1-2).

성령의 가르침과 도우심을 통해 드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롬 8:26-27)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교회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 "이는 그(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엡 2:18). 그런 까닭에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롬 8:26-27). 이 말씀에는 기도의 영에 대해, 그리고 성령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의 무능함에 대해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나는 이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려 한다.

"우리는…알지 못하나" 먼저, 여기에서 이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자. '우리'는 바울과 또한 그에 의해 대표되는 그의 동역자들 및 모든 사도들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이며, 복음의 제사장들이자 지혜로운 교회의 건축자들이다. 그들 중 얼마는 낙원에 이끌려 간 경험도 있다(롬 15:16; 고전 3:10; 고후 12:4). 그런데 그런 그들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고백한다. 단언컨대, 로마 카톨릭의 어떤 교황이나 교만한 대주교들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보다 하나님을 위해 더 능력 있는 사역을 했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공동 기도서』을 만든 자들이 바울과 그의 동료들보다 기도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나 은사에 있어서 이러한 자들보다 조금도 뒤쳐지지 않는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는 어떤 대상에게 어떤 중보자를 통해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믿음을 위해, 은혜에 의한 칭의를 위해, 그리고 진정으로 변화된 심령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모른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

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전 2:11). 그러나 감사하게도 사도들은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내적이며 영적인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 29:11).

더불어, 그들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도움 없이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역시 알지 못한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인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바울과 그 동료들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잘 하거나 성공적인 방법으로 기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사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최고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런 사도들조차 탄식과 신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신음으로 간구하였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할 바'라는 말을 주목하라. 이 말을 생각하지 않고는, 아니 적어도 이것을 영으로써 그 진리를 이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내용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오히려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왕상 12:26-33).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대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 또는 천사들의 어떤 기술이나 기교, 속임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친히" 오직 성령님 그 분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다. 성령과 인간의 열심이 아니

라, 오직 성령님만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사람이 그의 머리로 상상을 하고 고안을 하는 것과 주의 명령을 받고 그것을 마땅히 행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들이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정욕으로 구한 것들에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다(약 4:3). 아무것이나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어떤 동기와 영으로부터 나왔는지 그 마음을 살펴보신다(요일 5:14).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롬 8:27).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가 구할 것을 가르치실 수 있다. 오직 성령님만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것 까지도 찾아내실 수 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에게 수천 권의 『공동 기도서』가 있더라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 수 없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아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5. 기도는 진실하게, 감정을 느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위해,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이다(마 6:6-8).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기도가 된다. 만일 그 기도가 성경과 관련이 없는 간구라면, 그것은 신성모독이거나 가장 보기 좋은 공허한 말이 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 중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였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

아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시 119:25,28; 참고: 시 119:41-42, 58, 65, 74, 81-82, 107, 147, 154, 169, 170). 또한 다윗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시 119:49)라고 기도한다. 사실, 성령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말씀 없이 자극하거나 휘젓지 않으신다. 오히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함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성도는 주님께로 가서 성령께서 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 설득하고, 탄원하고 말하게 된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도 이처럼 기도하였다. 그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포로생활이 끝나가고 있음을 깨달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단 9:2-3).

성령께서 조력자이자 영혼의 통치자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실 때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이 비록 위험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를 제지하신 것이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마 26:53-54). 예수님께서는 '만일 성경에 그러한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다면, 나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원수들의 손에서 곧 구원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씀하

시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종류의 기도에 응답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하는 것이다. 성령님은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법에 있어서도 반드시 말씀대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이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고전 14:15). 그러나 만일 말씀이 없다면, 이해하는 마음 또한 있을 수 없다. 만일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는가?(렘 8:9).

6.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이 항목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높임,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유익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익을 구한다고 할 때 다른 나머지도 반드시 포함된다.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도를 만지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만지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이는 당신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온전한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천국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없다. 그 천국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예루살렘에게 주신 곳이다. 그러므로 시온, 즉 교회의 평화와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값 주고 사신 대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대가로 주신 대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교회의 충만

한 은혜를 위해, 교회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대항할 수 있는 도움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패역한 이 세대 중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흠도 점도 없이 지키실 것이다(빌 2:15).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그리스도의 기도의 본질이다. 그리고 모든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드려졌다. 그의 기도 중 하나는 이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빌 1:9-11). 짧은 기도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위한 선한 갈망들로 가득하다. 바울은 교회가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든든히 서길 기도했다. 그는 교회가 허물없이,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유혹과 핍박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성장해 나가길 기도했다(엡 1:16-21; 3:14-19; 골 1:13).

7.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주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지어다"(마 6:10)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 자신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상의 결과로, 하나님에 의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어 드려야 한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기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 의심하거나 의문을 품지 않는다. 그러나 성도들은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니며 사탄은 수시로 성도들을 유혹함으로 자기 영달을 추구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만일 성도가 사탄에게 미혹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백성의 유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구하게 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 5:14-15).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것은, 은혜와 간구의 성령 안에서 구한 그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말했듯이, 성령으로 옷 입지 않고, 성령을 통한 간구가 아니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아신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전 2:11).

3.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

출처 | *Intercessory Prayer: A Ministerial Task*
저자 | 유진 브래드포드(1915-2010)
저자 | 미국 기독교 개혁교회 목사, 필라델피아 출생.
역자 | 안선형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요 6:66).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덕분이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골 1:3-5).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며,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갖게 된 하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린다. 이 외에 바울이 기도하거나 감사드릴만한 다른 이유는 없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 실제로 드린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에 근거한 확신을 보여준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이 지혜가 있으며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면서 더욱 인내와 오래 참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한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골 1:12-14). 이 구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이 그들에게 죄의 용서와 하늘나라의 유산을 가져다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믿음의 체험에 이르렀다는 사실로 인하여 모든 감사를 드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이유로 그는 골로새 교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싸지기를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할 수 있었고, 더욱이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들은 이후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드리는 도고 기도의 의무와 또한 기도 응답에 대한 보장이 더욱 분명하게 함축되어 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의 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그들을 불러가며 감사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을 위해 기도하던 내용과 비슷하

지만, 에베소 교인을 위해 기도할 때에 특별한 기도를 덧붙이며 그들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엡 1:19)인지를 알기를 원했다. 그런데 그의 기도에서 대단히 인상적인 것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시킨 묘사이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엡 1:19-23).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가운데 나타난 그 능력을 너희들도 경험하기를 바라노라.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의 영원한 복락을 위해서 만유의 머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의 기도에 담긴 확신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모든 열방과 능력과 힘과 통치보다 훨씬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신비한 완전체인 몸 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 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모든 권세를 눌러 이기셨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교회의 머리를 높이 올리실 때 사용된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도 경험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머리와 몸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주의 몸의 지체들이 믿음으로 체험하는 신비하고 살아있는 연합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리를 존귀하게 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 몸과 그 모든 지체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4.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들

출처 | *A Sermon delivered on Setember 13, 1871*
저자 | 찰스 스펄전(1834-1892)
뛰어난 영국 침례교 목사로서 가장 잘 알려진 설교자이다.
영국, 에섹스, 켈베돈에서 출생.
역자 | 신형건

많은 이들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설교가 관심거리가 되지 못할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의 가치가 너무나 미약하여 기도하는데 방해를 받는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 의라는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할 것이다. 단지 형식적으로 무릎을 꿇고 진정성 없는 헌신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다. 주님이 날마다 수없이 많은 중언부언하는 진정성 없는 기도의 말을 들으시며 지치실 것을 생각하면 매우 끔찍하다. 이에 필자는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가장 엄중히 경고한다. 자비를 구하지 않는 자는 결코 자비를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양심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호의를 겸손하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작은 행위이다. 우리가 구하기를 거부한다면, 누군가 두드리지 않으면 닫혀 있는 문처럼, 은혜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기도는 어려운 요구가 아니다. 기도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행하는 자연스러운 의무이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베푸심에 대하여 보일 수 있는 가장 작은 경의이다. 그러한 경의를 보이기를 거절한 자들은 언젠가 지독한 궁핍에 처하게 될 때 자기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한탄하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 모독을 당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도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잠언 1:24,26).

만일에 어떤 죄인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용서 받기를 원하면서 무릎 꿇고 참회의 기도를 올리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가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기도하지 않는 영혼들을 영원히 던져 버려도 아무도 주의 엄중하심을 탓하지 못할 것이다. 기도 하지 않는 자들이여, 필자는 당신들을 위해 떨고 있다! 이러한 충분한 이유로 인하여 당신 자신을 위해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기도는 귀

중한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이며 은혜로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창문이다. 신자들에게 기도는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수단이고 천국과 거래하는 선박이며, 스페인의 갈레온 선(船)이 금의 나라에서 가져온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귀한 보물들로 하늘나라로부터 실어서 가져온다. 정말로 참된 신자들에게 기도는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처럼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 결혼 관계와 가정 문제에서 큰 지혜로 행동해야 한다. 베드로는 부부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 남편은 "지식을 따라" 그의 아내와 동거하며 그녀를 귀히 사랑하라고 명한다. 무엇이건 기도에 방해가 된다면 잘못된 것이다. 가정 내의 어떤 문제가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는 데에 상처를 준다면 즉각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 남편과 아내는 은혜의 공동 상속자로서 함께 기도해야 하고 이를 방해하는 어떤 성질이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게으르고 미온적인 상태에 빠질 때 기도는 방해를 받는다. 어떤 이가 차갑고, 무관심하고, 경솔해질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그의 경건함이다. 어떤 이가 육체적으로 아프면 그의 폐와 목소리가 타격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면 기도의 호흡이 타격을 입고, 간구의 외침은 약해진다. 기도는 영적인 힘의 참된 척도이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며 치명적인 성향이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라. 당신이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기도의 영이 당신 안에 머물게 한다면 어떤 특별 기간에 간구하는 것 외에도 당신의 마음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것이며 항상 주의 영은 당신과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기도가 방해를 받고 있다면 이는 당신의 영적 시스템에서 무언가가 제거되어야 하거나 무언가가 즉시 보충되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할 일이 너무 많으면 기도가 방해 받을 수 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경우는 매우 흔하다. 우리 인간은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 자족하였던 우리의 선조들의 고요한 시대는 지나고 인간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지겨운 일들을 한다.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 돈을 버는 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혹은 타인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던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고 확장하며 그 일에 몰두하다보니 점점 교회를 등한시하게 된다. 가장 먼저 "내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바다처럼 두 팔을 뻗어 해변의 모든 것을 붙드는 데"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 비유 속의 그 부자는 새로 지은 곳간에 자신의 물건을 비축해두는 계획을 세우느라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하지만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주님은 말씀하신다. "오늘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눅 12:20). 인간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채워지지 않는 탐욕과 재물에 대한 욕망, 그리고 "기타 욕심"(막 4:19)을 경계하라. 당장은 해악을 끼치지는 않더라도 기도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해를 끼칠 것이다.

우리는 심지어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아 마음이 분주하여 기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기도를 하느라 마음이 분주하여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일을 많이 할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우리의 섬김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더욱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행동의 생명줄이 되어야 하고 삶 전체를 적셔야 한다. 필자는 노력은 덜하고 기도만 많이 하면 일들이 훨씬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보다 공개적인 종교 행위들을 더 많이 갖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너무 많은 예배, 너무 많은 집회, 너무 많은 성경 읽기, 너무 많은 위원회 모임, 너무 많은 기도 모임 등에 참석하는 것은 나름대로 다 좋은 것이지만 만일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의 골방 기도를 방해한다면 다 해가 될 뿐이다. 설교의 목적은 기도이다. 목적보다 수단을 더 중시여기고 다른 모든 형태의 봉사를 허락하면서 기도를 한 구석으로 몰아넣는다면 이는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될 뿐이다.

물론, 너무나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도 기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앞서 너무나 하는 일들이 많다고 언급하였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균형을 이룰 수 있겠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일에서 은퇴해도 될 만큼 부를 허락해주셨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시간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하나 고심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무지한 자에게는 가르침이 필요하고, 병든 자는 찾아봐주기를 희망하며, 가난한 자는 도움이 필요하다. 시간이 많이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섬기는데 그 시간을 바쳐야 하지 않을까? 기도로 더욱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그들 모두가 주의 성도들처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도가 나의 일이고 찬양은 나의 기쁨이다." 그러나 필자는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그들을 충분히 삼키기 전까지는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어떤 이들은 질서의 부족으로 인하여 기도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 그들은 조금 늦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밀린 일을 하지만 결코 따라잡지 못하며, 항상 허둥대며, 하나의 의무가 끝

나기도 전에 다른 일이 꼬리를 물게 된다. 그들에게는 쉼의 시간이 없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도 부족하다. 결과적으로는 이 일 또는 다른 일이 생기면서 기도하는 것을 잊게 된다. 아니,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겠지만 대충 슬쩍 넘어감으로 실제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필자는 당신이 다음 한 주간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록하기를 바란다. 24시간 동안 과연 얼마나 많은 또는 얼마나 적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지 확인해 보기 바란다. 밥을 먹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자비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은 많지만 당신을 지으신 창조주와 몇 시간을 보내는가? 이 땅의 친구들과 상당한 시간을 보내지만, 하늘에 계신 당신의 영원한 친구와는 몇 분을 보내는가? 당신은 휴가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한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영혼의 쉼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는 거룩한 일을 행하면서 기도가 방해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기도가 방해를 받는 아주 끔찍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만일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 이것은 불규칙적인 삶에서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다. 목에 뭔가가 올라오면서 기도가 막힐 것이다. 하늘 아버지를 믿지 못한다면 온 마음을 다 해 기도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께 불만이 생기고, 그분을 향한 마음이 차가워지고, 주를 경외함이 부족하여지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주의 큰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과 경건이

결여된다면 당신의 기도는 막힐 것이다. 오! 사람이 그 크신 아버지와 충만하게 하나가 될 때, 내 영혼이 진심으로 "아바, 아버지"라는 외칠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자신을 주께 의탁하고 주의 영광을 내 영혼 가운데 즐거워할 때, 바로 그 때가 기도의 고지에 선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뜻하는 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의 기도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흐느적거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에 있지 못하다면, 만일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기의에 빠져 있거나, 내 자신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분을 망각하고 있다면, 만일 구세주가 필요 없다고 착각하여 자만심 가득한 바리새인처럼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방해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구세주를 닮기를 거부하고 그분을 본으로 삼지 않는다면, 또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영이 없다면, 만일 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만든다면, 만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많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방해 받을 것이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전달되기 전에 성령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신다. 참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지 않으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고 자비롭고 사랑 가득한 본성에 반하는 기도를 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 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도우실 수 없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령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특히 성령님의 부드러운

경고, 그분의 사랑의 부르심, 그분의 간절한 당부, 그분의 다정한 권고에 귀를 막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만일 당신이 신성한 보혜사께 귀를 막는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말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일 당신이 다른 일들에 있어서도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돕지 않으실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말을 덧붙이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주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 주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분은 결코 통회하는 부르짖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 그분은 화해를 구하는 모든 외침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하고 자비를 위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이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들의 기도는 텅 빈 바람과 같을 것이다. 사람은 그의 자녀의 요구는 들어주지만 낯선 자들의 말을 들어주지는 않는다. 친구들의 말은 귀담아 듣지만 원수의 말은 듣지 않는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똑같이 다 들어주시지 않으시며, 또한 항상 똑같이 들어주지도 않으신다. 모든 신자의 기도가 다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할 때 그들의 기도가 방해를 받은 이유를 곧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려면 신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다음 성경 구절을 들어보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약 5:16). 의로운 사람이라는 점에 주목하라. 우리의 구주의 말씀을 들어보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을 주목하라. 당신이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당신의 뜻을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율법과 무관하고 순종의 보상이 기도의 효력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집의 복음의 통치 방법이다.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께서 치유하여 주신 맹인은 가장 참된 말을 하였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요 9:31).

둘째, 순종 이외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약 1:6-7). 믿음이 없이는 기도든, 어떤 일에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은 도고 기도의 근간이며, 힘줄이며, 근육이다.

셋째로,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도는 실패할 것이다. 그 열망은 약속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기도는 약속에 의해 승인된 거룩한 마음의 소망이다. 참된 기도는 자기 갈 길을 잘 찾는 운반 비둘기와도 같다.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천국에 이른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천국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도는 단지 집을 찾아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더욱이, 기도에 힘이 있으려면 간절함과 강청이 있어야한다.

성경은 “의인의 (간절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약 5:16)고 말한다. 입으로만 믿는 신자들은 간절함이 없으며, 기도가 응답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 마음을 쏟아 붓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당신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경계 안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결심을 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기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분명한 목표이어야 한다. 만일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화살은 과녁을 빗나갈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믿고 간절히 열망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목적과 나란히 달리게 될 것이며 그 어떤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시 37:4).

우리는 또한 거룩한 기대를 가져야 기도가 방해 받지 않을 것이다. 궁수는 자기가 쏜 화살이 가는 방향을 잘 보아야 한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해야 하며 우리의 눈은 위를 보아야 한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주의 공로를 통해 기도에 성공하기를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 5:15).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기도의 용사로 만들

어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이 된다. 그 사람이 행동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5. 간구: 목사의 일

출처 | *"The Whole Works of the Late Rev. Ebenezer Erskine"*, Vol. 1.
저자 | 유진 브래드포드(1915-2010)
미국 기독교 개혁교회 목사, 필라델피아 출생.
역자 | 황모세

간구는 사도의 직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목회자의 직분과 연관된다. 맡겨진 양떼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목회자의 일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다. 프로그램, 회의, 진행 등이 익숙한 활동주의 시대에서 대체로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일은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회중과 관련된 이 역할을 등한시하는 목회자들은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복음의 목회자들과 신성한 직분을 염원하는 이들은 캠프벨톤(Campbelton)의 목회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존 스미스

(John Smith)가 외치는 소리를 단단히 붙들어야 할 것이다. 그는 1808년 이렇게 기록했다:

"기도는 신성한 기능의 생명이자 정신이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사역에 있어 아무런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최고의 가르침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가장 피땀 흘린 수고도 무익하다. 우리는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에 앞서, 모세처럼 고독한 곳에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기도는 매우 작은 은사를 가진 자들에게도 큰 성과를 얻게 한다. 그러나 기도가 없이는 위대한 은사도 쓸모가 없거나 유해하다. 경건 및 기도의 사람이 아닌 목회자는 그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종이라 불릴 수 없다. 오히려 오래 전 뱀을 택한 사탄처럼, 그는 사탄의 종이라 불리어야 한다. 왜냐하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였기 때문이다(창 3:1). 오!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의 목회자, 복음 전파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중재자, 사람과 창조주를 화해시키는 자는 괴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며, 기도는 우리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다. 하나님은 종종 야곱의 사다리에서 오르내리던 천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에게 주의 백성을 위해 마련된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항상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우리의 돌봄과 열심으로는 예방하거나 없앨 수 없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간청하고 그분의 마땅한 진노를 막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다. 죄인이 회개하도록, 성도가 굳건하도록, 약한 자가 강건해지도록, 낙심한 자가 격려를 받도록, 그리고 주제넘은 자가 각성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성도들의 필요와 죄가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더 많이 자주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평소 상태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특별한 사정들을 위해서 보좌 앞에 나아가 자비로운 아버지 앞에서 권하고 변호하고 간절히 당부 드려야 한다(John Smith, Lectures on the Nature and End of the Sacred Office, 33-34).

목회자로 하여금 맡겨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의 일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 구별된 순종을 하는데 있다는 생각이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롬 1:1)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었고 이제는 그의 종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부름 받아 택정함을 입었다. 오직 그것만을 위하여 전적으로 맹렬하게 헌신해야 한다. 그는 전문적인 직업을 갖지 않았다. 그는 경력도 쌓지 않았다. 그는 교회의 일을 위해 고용되지도 않았다. 그는 문자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분명히 상징적으로는, 사로잡힌바 된 노예이며 사슬에 매인 대사였다.

따라서 그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 후 그들을 향한 그의 진실된 마음을 확신시켜준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

고 너희를 말하며"(롬 1:8-9). 마치 그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한다. 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 그가 그들을 위해 신실하게 기도하였음을 증거한다. 바울이 맹세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리 만무하다. 그가 맹세로 이 말을 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그의 사도직의 성패는 교회를 위한 그의 기도와 병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그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실하고 끊임없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한다.

만일 맹세를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그는 또한 그의 진정성을 전하기 위해 "내 심령으로 섬긴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그의 사역에 아무런 거짓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가 단순히 해야 되는 의무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 것이다. 만약 그가 그들을 위한 그의 기도에 대해 거짓된 주장을 펼쳤다면 사도 바울의 죄가 얼마나 역겨운 것이 되겠는가! 바울의 삶과 글은 자신이 헛되거나 가식적이지 않고 참으로 진실하다는 위대한 고백과 결합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은 바울이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거부할 수 없는 내적 충동에 의해 움직였다는 타당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다고 증언한 바울은 그들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정기적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고 있다. 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그의 사도직만큼이나 소중히 여겼다. 우리는 그가 충실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그가 온전히 헌신하고 사랑하여 오던 그의 주님께 드리는 순종의 행위로 여긴 사실을 의심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도 우리의 직분에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아니면 훗날 언젠가 우리가 신성한 직분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런 모습을 하게 되리라고 열망하는가? 사람들은 어떤 외적 기준에 뛰어남과 성과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목회자의 직분이 그러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지는 전문적인 일로 여겨지는 것을 금하신다.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 사역자의 의무이다(고후 4:5). 우리는 사람들을 섬길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사역의 직분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다. 궁극적으로 목회자는 그가 섬기는 장로들이나 회중, 또는 그가 속한 노회에 의해 판단 받지 않는다. 그들은 그의 설교를 비판할 수 있고 그의 목양하는 모습에 대해 공평하든 그렇지 않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을 말하듯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해야 한다(살전 2:4). 설교에 있어서 목회자의 기본적인 책임이 사람들 앞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기도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이 크겠는가? 아무리 목회자와 다른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정통적이고 강력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아무리 그의 목양의 수고가 근면하고 능숙하다고 여겨지더라도, 만약 그가 그의 모든 수고와 함께 신실한 기도를 동반하는 것을 등한시 한다면 그는 주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6. 기도 모임의 중요성

출처 | *The Vital Role of the Prayer Meeting*
from Chapel Library

저자 | 에롤 헐스(Erroll Hulse)
Reformation Today의 편집장이며 영국에 위치한 침례교 목사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와 <The Banner of Truth Trust>에서 함께 수고하였다.

역자 | 스데반 황

매주 열리는 기도 모임은 지역 교회의 영적 기상도라고 한다. 당신이 매주 있는 어떤 교회의 기도회에 참여해서 그들의 자세와 기도 내용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떠한지 상당히 제대로 알 수 있다. 참으로 복음 전파에 관심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기도회를 통해 그 관심이 표출될 것이다. 구원 받지 못한 가족들의 회심을 간절히 바라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바람은 기도로 나타날 것이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비전과 모든 열방 가운데 부흥 및 우리의 구원자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

절히 바라는가? 그러한 거룩한 부담은 감추지 못하고 기도회를 통해 표출될 것이다. 인류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기근과 전쟁 가운데 있고 평화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데 그들을 향한 영적인 안타까움이 있는가? 교회의 기도 모임은 그 질문에 답할 것이다. 기도 모임에서의 간구를 보면 곧바로 그 교회가 시련 및 여러 가지 고통으로 억압 받고 눌린 자들을 돌보는 사랑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드러낼 것이다.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여러 고통과 시련을 당한 자들은 성령께서 특별히 기도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매일 기도 모임

한국 교회의 부흥과 관련한 결실 중에 하나는 매일 새벽 기도의 확장이다. 필자는 최근에 어떤 한국 목사에게 질문했다. 그는 대답하기를 복음적인 기독교 교단은 전부 매일 새벽 기도 모임을 갖는다고 대답했다(아침에는 새벽 5시에, 겨울에는 새벽 6시에 기도 모임을 갖는다고 했다). 한국 신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란 말인가? 어떤 한국 친구는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의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의 아버지의 헌신에 크게 감동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날마다 일하는 노동자였지만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일터로 가면서 아침 6시의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1866년에 스펄전은 태버너클 교회에 매일 기도 모임을 신설하고 매일 아침 7시와 저녁 7시 30분에 기도회를 가졌다. 전 교인 기도 모임은 월요일 저녁에 있었는데 3천명 이상이 참석했다. 그러한 모임이 가능하려면 작은 기도 모임들이 많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스펄전이 쓴 「단지 기도 모임 때에」라는 책은 월요일 저녁 기도 모임에서 나눈 간략한 설교를 모아

놓은 것이다. 그러나 그 책에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 모임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묘사는 없다. 루마니아를 방문한 사람들은 대형 교회의 기도 모임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지 관찰했는데, 모임 중의 한 무리가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 관례였다. 예를 들어, 아래층의 한쪽 부분의 무리가 기도를 감당하면 강당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한다. 기도는 열정적이며 신속하게 이어진다.

기도의 신학

"기도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를 감사함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B. M. Palmer, Theology of Prayer).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의 뜻에 맞는 바람을 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겠는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기도 모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기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여진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기도 모임은 영적으로 죽게 된다.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뜻과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롬 8:26). 참된 회개는 성령의 역사이다. 다윗은 그의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해 성령께서 책망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런 회개를 하지 않았다. 시편 51편은 성령님의 책망에 의해 나온 결과물이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바라는 마음과 부담 역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만들어진다. 동시에 그러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숙명론자가 되어 "자, 성령께서 우

리에게 오시면 더욱 기도에 관심을 갖고 힘쓰게 되겠지!"라고 말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렇지 않다! 그런 식으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도대체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주께서 알아서 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머뭇거린다. 우리는 양쪽을 다 붙들어야 한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이 방식을 따르는 만큼,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삶 전체에 반영될 것이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방편으로 삼는 기도는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다. 그분은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눅 3:21). 그분은 아직 어두운 이른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홀로 계셨다(막 1:35). 그분은 사도들을 택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으며(눅 6:12), 변화산에서 영광을 얻으실 때도 기도하던 중이었다(눅 9:29),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을 승리로 이끈 수단이었다(눅 22:44).

교회 내에 적절한 기도 모임이 있는가?

도고를 위해 부르짖을 기도 제목들을 고려하라. 가족 문제와 염려들, 교회 관건들, 복음의 확장, 교회 사역자들, 자매교회들, 지역 및 국가 문제들, 세계 선교 및 선교사들, 내전과 가뭄과 기근과 가난에 시달리는 여러 나라들, 특히 나라의 안정 및 위정자들의 정직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딤전 2:14). 기도 모임이 일주일에 한번이면 충분한가? 만일 우리가

그토록 영광스러운 왕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려면, 지역 교회는 더 많이 자주 함께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가정을 책임진 자들은 격주에 참석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어떤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 전에 간단한 기도 모임을 갖는데, 이는 예배를 위해 매우 좋은 준비가 될 것이지만 모든 교우들이 참여하기에는 용이한 시간이 아니다.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교회에는 공예배조차 간신히 참석하는 회원들이 있다. 그들이 매주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적인 삶과 성장은 원예와 비슷하다. 식물은 영양분을 먹어야 하고 배양되어야 한다. 하지만 강제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주께서는 연약한 자들에게 자상하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사 42:3). 공동체 내에는 위로의 은사를 지닌 자들이 있다(롬 12:8). 이 은사가 지혜롭게 쓰이면 그러한 안일한 신자들로 하여금 기도 모임에 충실히 나올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교회의 기도 모임에서는 융통성 있는 지도력이 중요하다.

상식에 속하는 지도력은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 인도자는 철저하게 기도회를 준비해야 하며 적절한 성경 구절과 함께 기도 모임을 위로하고 이끌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또한 모인 자들에게 당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또한 기도회 참여를 권장해야 한다. 참여자들에게는 기도회가 너무 길지 않을 것이며, 또한 시시할 정도로 너무 짧지도 않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특이한

나쁜 습관이 있는 참여자가 있으면 조용히 다가가서 상황에 맞추어 질서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도하는 대신에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이상한 설교조로 오래 기도하거나 자신이 암송한 성경 구절을 주님께 알려드리는 행동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정리하되 요약하는 것이 좋으며, 분명하고 간결해야 한다. 피곤한 상태로 참여하였거나 영적으로 차가운 상태로 온 사람들, 또는 반항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기도를 하는 이유 등을 성경적으로 잘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참여한 사람들의 감정과 교감할 수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기도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역할을 보여준다.

교회의 기도 모임의 위치와 중요성은 사도행전의 앞부분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오순절 사건은 교회의 기도 모임과 함께 발생하였다. 우리는 제자들이 얼마나 자주 휴식을 가졌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부흥을 위한 기도를 믿는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오순절 사건 직후 맹렬한 위협적인 박해와 함께 교회 성장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단 한가지였다. 바로 교회 기도 모임이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주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었다. 주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표시로 그 건물에 가벼운 지진을 허락하셨다! 나중에 다시 박해가 격렬하게 발생하였다. 야고보 사도는 목 베임을 당하였고, 베드로는 체포되어 옥에 갇히었다. 이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 의지하였는데, 바로 교회 기도 모

임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경우처럼 그들은 날마다 함께 모여 쉬지 않고 기도하였고 베드로가 처형되기로 하였던 그 시간까지도 기도하고 있었다. 주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쇠사슬에서 풀어주고 잠긴 옥문을 통해 항해하는 배처럼 어렵지 않게 옥에서 나오게 하셨다.

베드로가 풀려나서 어디로 갔는가? 그렇다. 그는 교회 기도 모임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는 어디서 기도 모임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던 것일까? 영적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가 기도 모임 장소를 모를 리 없다. 그가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살아서 돌아온 그가 베드로라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들은 우리처럼 기도의 효력에 대해 반신반의하였던 것이다.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을 보아도 유럽에서의 첫 번째 교회 역시 여성들의 기도 모임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행 16:13).

교회 기도 모임에서 시작된 부흥과 혁신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절박할 정도로 부흥이 필요하다. 성령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에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또한 교회의 기도 모임이 일어나게 하신다. 성경은 교회들이 종종 다함께 연합하여 기도드리는 것을 지지한다. 여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필자의 또 다른 책 「그분께 쉼을 드리지 말라」*(Give Him No Rest)*에서 설명되어 있다.

부흥은 언제나 기도 모임에서 시작되어 왔다. 사무엘 프라

임의 책 「기도의 능력」*(Power of Prayer)*를 보면, 국가적 차원의 부흥이 어떻게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되었는지 알려준다. 지역 교회에서 매주 열리는 기도 모임은 주께 부흥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다. 우리가 구할 때 주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 (엡 3:20).

7. 기도하지 않는 목사들

출처 | *The Prayer Life,* Morgan & Scott Limited.
저자 | 앤드류 머레이(1828-1917)
화란 개혁목사, 교육자, 저자, 남아프리카 그라프 라이넛 출생.
역자 | 김성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아마도 기도하지 않는 죄보다 더 심각하고 부끄럽고 참으로 죄책감을 주는 그러한 죄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죄가 왜 그리 큰 죄가 되는 것인가? 우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단지 연약함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의 깊은 죄악 됨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시간의 부족 및 온갖 종류의 산만함을 핑계로 대는 것보다 더 방해되는 것은 없다. 다음을 고려하면서 앞으로는 기도하지 않는 죄가 참으로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식하도록 하자.

1)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이다.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고, 대화를 하자고 하시고, 필요한 것을 말하라고 하시고, 그분과의 친교 안에서 복을 누리라고 초청하신 분은 거룩하고 영광스런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우리는 그분과 교제함으로 최고의 영광과 구원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하늘의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에 고작 5분의 분량도 할애하지 못하는가! 그들은 시간도 없고, 기도할 마음의 소원도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30분을 보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이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매일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부인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과 교제의 표인 기도에 있어서 전혀 기쁨을 얻지 못한다.

어떤 친구가 그들을 방문한다면, 그들은 시간을 내거나, 친구와 즐거운 대화를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시간을 만들 것이다. 그렇다. 그들은 자신에게 정말 흥밋거리가 되는 모든 것을 위해 시간을 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시간은 갖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위해 시간을 낸다. 그러나 날이 가고, 달이 가면서 시간이 흐르지만, 그들에겐 하나님과 한 시간도 교제할 시간이 없다.

감히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치욕거리이며 모욕인지를 인식하기 바란다. 만일 이러한 죄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깊은 수치심을 갖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하지 않는 이 비참한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통곡해야 하지 않겠는가!

2) 기도하지 않는 죄는 결핍된 영적인 삶이 원인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삶이 여전히 ‘육체’의 세력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기도는 생명의 맥박이다. 의사는 생명의 맥박을 통해 심장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다. 기도하지 않는 죄는 평신도이든 목사이든 그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치명적인 질병과 연약함에 놓여 있다는 증거이다.

교회 소명의 성취에 대해, 교회 지체들을 향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세상의 권세로부터 지체들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헌신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 교회가 연약하다는 많은 말과 불평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수 백 만 명의 이교도들에게 주의 사랑과 구원을 전해야 함에도 교회는 그것에 무관심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세상 속에서 일하는 수 천 명의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그런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사역에 있어 기도하지 않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그들은 연구와 교회사역에 있어서 부지런히 뛰고 설교와 사람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모든 신실함을 나타내지만 성령의 확실한 약속과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연결되는 끊임없는 기도는 부족하다. 강력한 영적 삶의 부족의 원인은 다름 아닌 기도하지 않는 죄이다!

3) 교회가 겪는 치명적인 손실은 기도 없는 사역의 결과이다.

목사의 사역은 신자들에게 기도의 삶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 자신이 하나님과의 대화와, 또한 자신과 그의 사역을 위해 성령으로부터 매일 하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는 기술을 알고 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훈련의 사역을 감당하겠는가? 목사는 회중을 자신보다 더 높은 자리로 이끌 수는 없다. 목사는 자기가 직접 행하지 않고 또한 살아보지 못한 것들을 단지 열정만으로 회중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거나 그 일을 설명할 수는 없다.

수천수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복에 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 많은 목사들이 기도를 통한 복에 대하여 알고, 또한 그 지식을 증가시키기를 원하지만, 정작 설교를 위해서는 복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목사가 강력한 기도의 비밀에 대해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설교 사역은 그 속성과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 사역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바르게 깨닫고 그 죄로부터 벗어난다면 우리의 회중 가운데서 얼마나 큰 변화를 볼 수 있겠는가!

4) 기도하지 않는 죄가 극복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 사역의 가장 큰 요소는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께 자신을 드려 기도에 전력할 형제와 자매들을 얻는 것임을 느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원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 주야로 기도한다면 세상을 구원하시고 복 주실 수 있다고 들어왔다. 그러나 우선 목사가 완전하게 변화하여,

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설교나 목회 심방이나 교회 사역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옷 입는 것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회중이 자신을 드려 기도에 전력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겠는가!

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생각과 사역과 기대로 인하여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죄를 뽑아내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능력으로 그 죄로부터 구원하소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가르치사 그들이 먼저 이 악의 뿌리에서 구원 받을 때, 그가 차지하게 될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이 담대함과 기쁨으로, 믿음과 인내 가운데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지 않는 죄! 주님이 그 죄의 짐을 우리의 마음에 무겁게 두사 우리가 그 죄를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제거할 때까지 안식을 얻지 못하기를 원한다. 주께서는 그 죄를 제거해 주실 수 있다.

>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그의 모든 시선, 그의 모든 사랑, 그의 모든 소원과 갈망, 그리고 기쁨은 하늘 보좌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헌신의 날개를 달고 계속해서 비상하고 날아올라야 한다. 신자가 힘든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모든 외적 싸움, 모든 내적 몸부림은 신자의 슬픔을 만들어 내지만 또한 하늘 보좌로부터 도움과 구원을 기대하게 만드는 기념물이 되어 신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게 한다. 기도가 없는 신자는 명목상 이름뿐이고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만약 신자가 기도에 중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관심도 없고, 세상에서 어떤 소망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일뿐이다.

– 존 스미스

나는 자기 양떼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는 결코 그의 영혼 안에 자신이 그 양떼를 위해 어떤 사역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어떤 증거도 가질 수 없다고 믿는다. 그가 원하는 만큼 많이 설교하고, 원하는 만큼 최대한 심방하고, 원하는 만큼 강의할지라도 골방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붙들지 않고 있다면 그는 자신이 바르게 사역을 감당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그 어떤 증거도 얻지 못할 것이다.

– 존 오웬

8. 기도를 하지 않는가? 아니면 기도로 충만한가?

출처 | *Practical Religion*
저자 | J.C 라일(1816-1900)
성공회 감독이며 저자이다.
영국 체셔 카운티 맥클레스필드 출생.
역자 | 오병재

각처에서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딤 2:8).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한 마디 하려고 한다. 나는 감히 이 글을 읽는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만약 당신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에게 하는 이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를 바란다.

기도하지 않는 친구여, 나는 단지 당신에게 경고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매우 엄숙히 경고하고자 한다. 나는 당신이 무서운 위험에 처해 있음을 경고한다. 만약 당신이 현재의 상황에서 죽게 된다면, 당신은 잃어버린 영혼이 될 것이다. 당신은 오직 영원한 비참 가운데 일어서게 될 것이다. 나는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경고한다. 당신은 기도 없이 사는 것에 대해 단 하나라도 타당한 이유를 댈 수 없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소용없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 있어서 가장 단순한 행위이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다.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배움이나 지혜나 책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마음과 뜻만 있으면 된다. 가장 연약한 유아라도 배고플 때 울 수 있다. 가장 가난한 거지라도 동냥을 얻기 위해 손을 벌릴 수 있다. 그는 멋진 말을 찾기 위해 기다리지 않는다. 가장 무지한 자라도 단지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 고할 수 있다.

기도할만한 편리한 장소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소용없다. 만약 기도할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사적인 곳을 찾을 수 있다. 우리 주님도 산에서 기도하셨다. 베드로는 지붕에서, 이삭은 평지에서, 나다니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기도하였다. 어떤 장소이든 골방, 기도처, 그리고 벧엘이 될 수 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소용없다. 사람들이 시간을 이용하려고만 하면 시간은 충분히 있다. 시간은 부족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데는 항상 충분히 길다. 다니엘은 친히 왕궁의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하루 세 번씩 기도했다. 다윗은

강력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였지만 그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탄식하리니"(시 55:17)라고 말한다. 시간을 정말로 원한다면, 항상 시간은 있다.

믿음과 새 마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것들을 기다려야 하기에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소용없다. 이것은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이는 돌이키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것만큼 충분히 악한 것이다. 그럼에도 "나도 그 사실을 알지만 자비를 위하여 부르짖고 싶지는 않아"라고 말하는 것은 더 나쁜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전혀 보장을 하지 않는 그러한 주장이다. 이사야가 말하였다. "너희는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사 55:6). 호세아가 말하였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호 14:2). 바울이 마술사 시몬에게 말하였다. "회개하고 기도하라"(행 8:22). 만약 당신이 믿음과 새 마음을 원한다면 주께 나아가 외치라. 기도하려는 바로 그 시도가 종종 죽은 영혼을 일깨우곤 한다. 아, 기도하지 않는 악보다 더 위험한 악은 없다.

오, 기도하지 않는 자여, 당신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가? 당신은 죽음 및 지옥과 계약을 맺었는가? 당신은 벌레와 불못과 평화롭게 지내는가? 당신은 용서를 구할 만한 아무런 죄악이 없는가? 당신은 영원한 고통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가? 당신은 천국을 바라지 않는가? 오, 현재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당신이 깨어나기를! 오, 당신의 궁극적인 결말을 고려할 수 있기를! 오, 당신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외치기를! 아, 사람들이 크게 기도해야만 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마 25:11), 그러나 모두가 너무 늦었다. 하나님께 결코 기도하지 않으려던 많은 사람들이 바위에게 말하여 자기들 위에 떨어지

라고 울부짖고 산들에게 그들을 덮어 가리우라고 외칠 것이다. 모든 애정을 담아, 나는 당신에게 경고한다. 이것이 당신의 영혼의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원이 바로 당신 가까이에 있다. 구하지 않음으로 하늘을 놓치지 않도록 하라.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누군가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그러한 모든 이들에게 형제의 조언과 위로로써 몇 마디 하고자 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대해 아는 바에 따르면, 종종 당신은 당신 자신의 기도에 싫증을 느낀다. 물론 때때로 철저하게 무릎을 꿇을 때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롬 7:21) 상태에 결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은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시 119:113)라는 다윗을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며, 가련한 어떤 회심자가 "주여, 나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한 내 자신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공감한다. 기도의 때에 종종 내면의 갈등을 겪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거의 없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특별한 분노를 느낀다.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드려진 기도들은 대단히 의심스러운 기도라고 믿는다. 나는 우리는 어떤 것이 좋은 기도인지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고 본다. 그리고 종종 우리를 가장 덜 기쁘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고 믿는다. 그리스도인의 전투에 속한 동료로서, 내가 당신에게 하는 몇 마디의 권고를 참고 들어주기를 바란다. 적어도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으로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한다.

(a) 그렇다면 나는 당신에게, 기도에 있어서 경외와 겸손의

중요성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기를 권고한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엄숙한 것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자.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부주의함과 경솔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자. 우리 자신에게 말하자. "나는 거룩한 곳에 서 있다. 이곳은 하늘 문과 다름없다. 만약 내가 진지하게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솔히 대하는 것이다. 만약 마음에 죄를 품으면 주께서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실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 마음에 두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전 5:2).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창 18:27)라고 말하였고, 욥은 "나는 비천하오니"(욥 40:4)라고 말하였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자.

(b) 나는 당신에게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권고한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성령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모든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영적인 것은 형식이 될 수 있고, 특히 개인 기도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가능한 가장 적합한 말을 사용하고 또한 가장 성경적인 청원을 사용하는 습관에 빠질 수 있다. 아무런 느낌 없이, 마치 방앗간의 말이 오래된 다져진 길을 매일 걷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게 될 있다. 나는 이 점을 주의 깊고 섬세하게 다루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가 매일 원하는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한 것들은 같은 말로 구하지만 전혀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다. 세상, 마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매일 같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매일 같은 땅을 지나야 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점을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우리 기도의 뼈대나 구조가 습관적인 형식에 빠

져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성령으로 옷 입히고 채우도록 최대한 노력하자.

(C) 나는 당신에게 기도를 삶의 규칙적인 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한다. 기도를 위해서 하루에 규칙적인 시간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유대인의 성전에서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의 시간들은 의미 없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무질서는 분명히 죄의 열매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것도 속박 아래로 가져오지 않으려고 한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단지 당신의 24시간의 일과 가운데 기도를 일과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 당신의 영혼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자 한다. 당신이 먹고 자고 일하는 시간을 할당하는 것처럼, 기도에도 시간을 할당하기 바란다. 시간과 때를 선택하라. 적어도 세상과 말하기 전에 아침에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하고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한 후에 밤에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하라. 당신의 마음속에 기도가 매일의 일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새겨 넣으라. 기도를 구석에 던져 놓지 않도록 하라. 기도를 당신의 하루에서 찌꺼기 조각으로 남는 시간이나 또는 할 일이 없을 때 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라. 당신이 하루에 무슨 일을 하든, 기도의 일을 빼먹지 마라.

(d) 나는 당신에게 기도할 때 인내의 중요성을 권고한다. 일단 기도 습관이 시작되면 결코 포기하지 마라. 당신의 마음은 때때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가족 기도시간이 있잖아. 개인 기도 시간을 뺀다고 해서 뭐가 그리 해가 되겠어?” 당신의 몸은 때때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는 지금 몸이 좋지 않고, 졸리고, 피곤해. 너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당신의 마음은 가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는 오늘 중요한 사업에 참

석해야 하잖아. 기도를 줄이도록 해." 이러한 모든 제안들은 마귀로부터 직접 온다고 여기라. 이러한 제안들은 "네 영혼을 소홀히 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나는 기도 시간의 길이가 항상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를 포기하는 것에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는 점이다.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골 4:2; 살전 5:17)고 말한 것은 공연히 그런 것이 아니다. 바울은 옛 분파인 유카이트(Euchites, '기도파'-4세기에 영원한 기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종파의 사람들)처럼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드려지는 번제와 같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번제는 매일 꾸준히 드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씨앗을 뿌리는 때든, 추수 때든, 여름과 겨울의 때든 항상 드려졌다. 번제는 규칙적인 시기를 따라 쉬지 않고 드려졌다. 그것은 제단의 불처럼 항상 제물을 태우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불이 꺼지는 적이 없었다. 당신이 아침과 저녁의 헌신의 시간 사이에 하루 동안 짧은 간단한 기도로 기도의 사슬을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도 했던 것처럼(느 2:4), 회사나, 일터, 또는 거리에서조차, 당신은 조용히 작은 날개달린 전령을 하나님께 올려 보낼 수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어느 나라도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더 가난해지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끊임없는 기도를 드릴 때 결코 실패자가 되지 않는다.

(e) 나는 당신에게 기도의 간절함의 중요성을 권고한다. 사람이 그의 간절함을 입증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큰 소리로 말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떤 일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마음을 쏟고 열정을 갖고 찾는 것

은 바람직하다. 역사하는 힘이 강한 기도는 열정적인 기도이지 차갑거나 졸거나 게으르거나 무기력한 기도가 아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 사용된 표현들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다. 기도는 "울부짖고, 두드리고, 씨름하고, 열심히 하고, 분투하는 것"으로 불린다. 이것은 성경의 사례들에 의해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이다. 야곱이 그 한 사례이다. 그는 브니엘에서 천사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창 32:26). 다니엘도 그러하다. 여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보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단 9:1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다. 주께 대하여 쓴 글이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히 5:7). 아,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다른가! 우리의 기도들은 얼마나 타성에 젖어 있으며 미지근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중 많은 이에게 얼마나 진실하게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마 20:22).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고치도록 하자. 천로역정의 '자비'처럼, 은혜의 문을 크게 두드리도록 하자.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멸망을 당할 것이 분명하니 그렇게 하자. 차가운 기도는 불이 없는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자.

(f) 나는 당신에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권고한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신다고 믿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한다면, 우리는 항상 응답받을 것이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명령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믿음과 기도의 관계는 깃털과 화살의 관계와 같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표적을 맞추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서 주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는 주의 약속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삼하 7:25)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은 야곱, 모세, 그리고 다윗의 습관이었다. 시편 119편은 "주의 말씀에 따라" 묻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를 드린 후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습관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는 배를 바다로 내보내는 상인처럼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무언가 돌아오는 것을 보지 않으면 만족해서는 안 된다. 아,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거의 믿지 않았다(행 12:15). 지난 날, 트레일(1642-1716, 장로교 목사 및 작가) 목사가 남긴 엄숙한 말씀이 있다. "사람들이 주의 기도 응답에 대해 개의치 않는 것은 기도를 하찮게 여기는 가장 분명한 표시이다."

(g) 나는 당신에게 기도의 담대함의 중요성을 권고한다. 어떤 이들의 기도에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꼴사나운 무례함이 있다. 그러나 거룩한 담대함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나는 그러한 담대함이 모세의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본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출 32:12). 여호수아에게도 그러한 담대함이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 성 전투에서 패배하자 그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수 7:9)고 기도한다. 루터의 담대함은 잘 알려져 있다. 그의 기도를 들은 어떤 사람은 "그의 영은 얼마나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께 구걸하는 자처럼 그러한 존중을 표현하면서도 사랑하는 아버지 및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러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였다. 이 부분 역시,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매우 부족하다. 우리는 신자의 특권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주님, 우리는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야 하는 것은 주의 명예를 위한 것은 아니겠습니까?"라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간구하지 않는다.

(h) 나는 당신에게 많은 기도의 중요성을 권고한다. 나는 우리 주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오래 기도하는 것을 경고하신 것과,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잊지 않고 있다. 반면에,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주님은 스스로 길고 긴 밤에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셨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를 너무 많이 함으로 인해 실수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너무나 기도하지 않으므로 두렵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드리는 시간이 실제적으로 너무나 적지 않은가! 나는 이러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헌신의 시간을 갖는데 있어서 너무 빈약하고 제한적이라는 사실에 필자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단지 살아 있을 뿐 그 이상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데 충분하

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주님께 고백할 것, 구할 것, 감사할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 이것은 모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신자들이 무엇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더 이상 이상하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만큼 은혜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구하는 만큼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닐까? 그들이 적게 구하기 때문에 적게 얻는다는 많은 구절들이 있지 않은가? 그들이 연약한 이유는 성장하지 않고, 왜소하며, 끊어져 있고, 인색하며, 조급하고, 작고 좁은 짧은 기도 때문이다. 그들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오, 독자여,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에 궁핍한 자들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 81:10)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땅을 대여섯 번 내리쳐야 했을 때 세 번 내리치고 말았던 이스라엘 왕과 같다(왕하 13:18-19).

(i) 나는 당신에게 특별한 기도의 중요성을 권고한다. 우리는 위대하고 일반적인 간구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바람을 구체적으로 아뢰어야 한다. 우리가 죄인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고 알려주는 죄악들을 언급해야 한다. 거룩함을 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여야 한다. 우리가 고난에 처해있다고 주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알려드려야 한다. 이것이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두려워하였을 때 했던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였다(창 32:11). 엘리에셀이 그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고자 했을 때도 그렇게 하였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알려드렸다(창 24:12).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도 그렇게 했다. 그는 주께 사실대로 고하였다(고후 12:8).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며 확신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드리기에 너무 사소한 일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참 신랑이시며, 우리 마음의 참된 의사이시고 주의 모든 백성의 참 아버지이신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님과 맘껏 교통함으로 보여주도록 하자. 그분께 아무 것도 감추지 않도록 하자. 그분께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자.

(j) 나는 당신에게 도고 기도의 중요성을 권고한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매우 이기적이다. 우리의 이기심은 너무나 강하여 회심 이후에도 달라붙어 있다. 우리는 신앙 성장 과정에서 영적인 갈등을 갖게 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을 망각하고 자신만 생각하려는 성향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성향과 대항하여 항상 주의하고 노력해야 하며 특히 기도에서 그러하다.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 자신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 불러야 한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온 세상을 품어야 한다. 이교도들, 유대인들, 로마 가톨릭들, 참된 성도의 공동체, 개신교 교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속한 회중, 우리가 머무는 가정,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과 친척들 등, 우리는 각각 그리고 이 모두를 위해 간구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고결한 자비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로 가장 사랑한다. 도고 기도는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이다. 도고 기도는 우리의 긍휼을 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킨다.

도고 기도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복음 확장을 위해 운영되는 모든 기계의 바퀴는 기도로 원활해진다. 도고 기도는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 주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가슴과 어깨에 자기 백성의 이름을 품으신다. 오,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특권이라니! 도고 기도를 드리는 자는 목회자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된다. 만약 내가 회중을 선택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을 내게 보내어 달라고 할 것이다.

(k) 나는 당신에게 감사 기도의 중요성을 권고한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른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성경에서 기도와 찬양이 가깝게 연결된 것을 본다. 나는 감사가 없는 기도는 감히 참된 기도라고 부르지 못한다. 바울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 4;2)고 말한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 우리가 지옥에 있지 않은 것은 자비 때문이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진 것은 자비 때문이다. 우리가 영적인 빛의 땅에서 살고 있는 것 역시 자비 때문이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 자신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도 자비 때문이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 있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든 수동적으로든 영광을 올려드릴 기회를 갖고 있는 것도 자비 때문이다. 분명히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 있어야 한다. 분명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로 살게 하는 거저 주시는 은혜와 변함없이 주어지는 주의 인자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해야 한다. 뛰어난 성도 중에 감사로 충만하지 않은 성도는 전혀 없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감사로 시작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다. 지난 세기의 윗필드와 같은 사람들과 우리 시대의 비커

스테스, 말쉬, 홀댄 스튜어트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와 함께 살아갔다. 오, 만약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밝고 환히 빛나는 빛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찬양의 마음을 품어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l)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에게 기도로 깨어있는 것의 중요성을 권고한다. 기도는 당신이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깨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기도로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된다. 그곳에서 왕성함과 쇠퇴함이 결정 난다. 어떤 사람의 기도 생활을 내게 말해 달라. 나는 곧바로 당신에게 그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말할 것이다. 기도는 영적인 맥박이다. 이것으로 영적인 건강이 언제나 확인될 수 있다. 오,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에 우리의 실천적인 기독교의 본질과 활력과 뼈대가 있다. 설교들, 책들, 전도지들, 위원회 모임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의 모임은 나름대로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개인적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을 매워주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당신의 마음을 벗어나게 만들고 기도를 무겁게 만드는 장소들, 모임, 동료들을 잘 기억해 두라. 그리고 경계하도록 하라. 당신의 영혼을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만드는 친구들과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리고 그러한 친구들과 일들을 꼭 붙들라. 만일 당신이 당신의 기도를 잘 돌보기만 해도, 나는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영혼이 잘못되도록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장한다.

나는 이러한 요점들을 각 개인이 생각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나는 이 제안을 모든 겸손함으로 하였다. 이 제안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신이 더욱 기억해야 하는 내용임을 안다.

하지만 나는 이 제안들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으며,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더욱 그렇게 느끼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기도하는 시대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 글을 보내면서 나의 마음의 바람과 기도는 기도의 영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아직 기도해 보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부르짖기를 원한다. 나는 기도하는 자들이 매해 그들의 기도를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그들이 안일하여지거나 그릇된 기도를 드리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기도는 가장 높으신 분과의 교제를 붙잡고자 하는 영혼의 갈망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축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의 바람이다."

– 찰스 스펄전

9. 계속 기도하라

출처 | *From Morning and Evening*
저자 | 찰스 스펄전(1834-1392)
회중 교회 목사이자 신학자. "청교도의 왕자"로 불린다.
영국의 옥스퍼드셔의 스태드햄프톤에서 출생.
역자 | 안선형

얼마나 많은 성경 부분이 기도라는 주제와 관련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롭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예들, 기도하라는 명령들, 그리고 기도와 관련된 약속들이 있다.

우리가 성경을 펴면,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창 4:26)는 내용을 볼 수 있고, 성경을 덮을 때는, 우리의 귀를 울리는 간절한 기도인 '아멘'이 있다(창 22:21). 기도의 예들은 참으로 많다. 우리는 씨름하는 야곱을 볼 수 있으며,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다니엘을 만난다.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엘리야는 산에서 부르짖는

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서 기도한다. 우리는 기도하라는 셀 수 없이 많은 명령과 또한 끝없는 약속들을 대하게 된다. 이 모든 내용들은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를 교훈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뚜렷하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보이게 하시려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주께서 기도에 대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다면 이는 우리에게 그만큼 기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리에게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기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가? 그렇다면 나는 당신이 자신의 궁핍함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하나님께 구할 자비가 없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당신의 비참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기도하지 않은 영혼은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이다. 기도는 갓 태어난 신자의 혀짤배기 소리이며, 전투하는 신자의 부르짖음이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죽어가는 성도의 애가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이며, 좌우명이며, 위로요, 힘이요, 영광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은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할 것이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 것이다. 거룩하고 겸손하고 열정이 있고 인내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라.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갖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더 자주 연회장으로 들어가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욱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 당신의 삶의 좌우명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골 4:2)이다.

1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기도

출처 | From "The Preciousness of Prayer"
in *The Precious Things of God*
저자 | 옥타비우스 윈슬로우(1808-1878)
영국 비국교도 목사. 런던에서 태어나 미국 뉴욕에서 자랐다.
영국 배스(Bath)의 아베 묘지에 장례되었다.
역자 | 조현목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계 5:8).

기도는 중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망의 증거이며, 기도하는 것은 뚜렷하고 확실한 생명의 증거이다. 우리 영혼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가장 필요하고 영적이며 순전한 기도가 뿜어져 나오게 하신다.

가사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서 가슴이 살짝 올라가고 거울 표면에 희미한 입김을 맺히는 경미한 생명의 징후가 발견되면, 우리는 이를 생명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로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는 그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힘찬 근육 활동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그 대신 잠든 맥박이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미루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생명의 빛이 반짝이는 것에 만족을 얻고 소망을 다시 발견한 후 더 힘차게 수고할 것이다. 기도는 중생한 영혼의 영적인 삶이다.

심오한 종교적 지식이나 대단히 깊은 영적 체험 또는 불타는 열정과 큰 힘이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와 같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해 "보라, 그가 기도한다"라는 말이 들리면, 그는 살아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보이지 않은 세계와의 교통이 있다면 생명, 곧 신령하고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여기에 부패한 토양에서 자라나는 의(righteousness)의 나무가 있고, 죄와 부패와 사망 가운데 꽃을 피우고 숨을 쉬는 거룩한 꽃이 있다! 물론 이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씨앗이고 싹이며 접붙인 가지이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들 중에 이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원리와 정신이며 그 능력과 달콤함이다.

사도 요한의 눈앞에 지나갔던 종말론적 이야기의 한 장면을 선택해보자. 위대한 여러 계시들 중,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 환상을 보았다. 바로 다음 절에서 장로들이 스스로를

"어린양의 피로 구속 받은" 존재로 인정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십사 장로들이 천사에 속한 자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구속 받은 교회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자들임에 틀림없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며 성도들의 기도는 귀하고 거룩하고 향기롭고 받으실 만한 향과 같이 여호와 앞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성도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는 향기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은 성도들을 가리킨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가장 귀중하고 거룩했던 이전의 기도하는 사역과 직분은 이제 영원히 멈추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완벽한 것이 도래했고 단지 부분적이었던 것들은 이제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달콤한 위안과 풍성한 위로가 되었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환경이었던 기도와 간구는 이제 찬양으로 대체되었다. 경배와 감사와 예배는 모든 영혼을 채우고 모든 마음을 조율하며 세상의 모든 방언으로 드려진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 외에 다른 기도는 천국에 없다. 천국에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으며(히 9:12)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히 7:25)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분만이 중보자로 인정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들으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시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는 매우 기뻐하신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

도의 중보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 당신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에봇과 흉패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짐을 감당하시고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신다. 성도들의 간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심장과 십자가, 그리고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나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상달된다. 그 누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이 진리의 복을 완전히 펼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자들이여, 장막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임마누엘의 사역에 의한 도움과 위로와 은혜의 복을 우리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빼앗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외에 더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있는가? 그는 애틋한 친구의 마음으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형제의 심정으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며 구세주의 중보의 공로로 우리를 도우신다. 그가 영광의 금 제단 앞에 서 계시고 그의 공로의 거룩한 향이 온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는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영광의 장막 안에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의 확실하고 소중한 징표가 없다고 생각지 말라. 진리에 대한 이 모형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는가? 제사장 아론의 옷에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 방울"이 있었다(출 28:34). 이 거룩한 악기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렸다(출 28:35).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반갑고 달콤한 소리였겠는가! 이는 제사장이 장막 안에서 그의 흉패에 성도들을 품고 제단 앞에서 그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며 그의 중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성도들을 받으시는 징표가 된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장막 안으로 들어가사 하나님

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셨다. 그의 방울소리 음악이 들리지 않는가? 그 선율이 얼마나 황홀한가! 그 의미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언약의 복이 내려왔으며, 모든 기도에는 은혜로운 응답이 있고,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의 광선이 내리며, 마음속에서는 기쁨과 평화와 소망이 샘솟고, 모든 짐을 견딜 수 있으며, 모든 슬픔은 누그러지고, 모든 유혹이 깨졌다. 이 모든 것들이 영광스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옷에 달린 방울소리이다. 그 선율이 얼마나 달콤하고 귀중하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성도의 기도" 만약 기도가 영혼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호흡이고 마음 속 간절함의 표현이며 자녀의 언어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은은하게 퍼지는 마음의 향이라고 한다면,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도밖에 없다. 기도는 거룩한 자들에게만 매우 거룩하고 영적인 활동이다. 그 누구도 가난한 심령으로 자기를 혐오하며 그리스도를 바라지 않고는 은혜의 보좌 앞에 스스로 엎드릴 수 없다! 성도들에게 기도의 자리는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다. 기도는 성도들을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끌어당기며 그들을 영구적으로 단단히 매는 매력이 있다. 밖에서는 모든 것이 어둠이지만 기도의 자리에는 모든 것이 밝은 햇빛이 된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숭고한 모습을 보인다. 천사들은 경외와 기쁨 섞인 마음으로 그를 내려다본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다. 세상이 예수의 이름을 조롱하고 그 이름을 입은 성도들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라. 하지만 *"성도라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호칭이다. 우리를 부르시는 얼마나 사랑스런 호칭인가! 우리는 죄

로 인해 천사보다 열등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은혜로 인해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 거룩하신 이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를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의"(롬 3:21-22)로 옷 입은 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 흠모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주여!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본성을 부정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멸시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영원한 성도의 무리 안에 나를 포함하여 주소서. 영광과 존귀와 영원이 당신께 세세토록 있나이다!

향(incense)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 이 상징은 매우 아름답게 표현된 거룩한 시적 표현 중 하나이다. 다윗 또한 이와 관련하여 기도는 거룩한 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시 141:2).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과,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는 필수적인 특징이라는 사실을 보았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이다.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성도는 그의 양심이 허용하는 대로 기도의 장소와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교회인지 헛간인지, 공적인 예배의 방식인지 자유로운 방식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마음 속 깊은 곳을 돌아보면서 믿음과 진정으로 경배하며 뉘우치는 마음의 향로를 제단 앞에 흔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끌리어 보이지 않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게 된다면 그는 기도하는 자이다. 하지만 기도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필수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 또한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 사랑하는 독자들이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필요로 한다. 귀중한 특권인 기도는 우리가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습관은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과 돌보심,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습관은 틀림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아버지와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과 계속적이고 밀접한 교제를 나누게 할 것이다.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며, 유혹을 받고, 매일 시련과 슬픔과 낙심의 지배 가운데 놓이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기도는 성도를 둘러싸고 있는 살아 있는 환경임에 틀림이 없다! 단 한 순간도 우리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이 땅에 거하는 신자의 마음과 천국의 위대한 중보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는 매 순간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유지되도록 한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당신의 매일의 삶 속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생의 짐들과 욕구와 짜증과 이전 습관을 따르는 모습과 단점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오지 않는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사람이 친구와 사귀듯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당신과 만나시고 이야기하시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고서는 자비와 힘과 용기와 인내와 위로와 위안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기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와야 한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거나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거룩하고 달콤하며 소중한 특권이다.

개혁복음주의회 제 4호

필수적인 기도

저자: J.C 라일/ 존 버니언/ 유진 브래드포드/ 찰스 스펄전/
에롤 홀스/ 앤드류 머레이/ 옥티비우스 윈슬로우
역자: 우선동/ 이중원/ 스데반 황/ 신형건/ 황모세/ 김성환/
오병재/ 안선형/ 조현목

Christ-Centered Reformed Theology Fellowship translates and
publishes this material from (www.chapellibrary.org)
by permission of Chapel Library.

개혁복음주의회는 채플라이브러리의 공식적인 허락 하에
www.chapellibrary.org로부터 이 글을 가져와 번역하고 출판합니다.

발행일 2017년 9월 7일
발행처 개혁복음주의회
등록번호 제2016-000024호 / 등록일 2016년 12월 28일
주 소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278번길 28-10 103동 202호

* 잘못된 책은 바꾸어드립니다.